

한·미 관세협상 타결, 상호관세 15%

- 7월 31일 정부는 미국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%에서 15%로 낮추는데 합의했다고 밝힘.
 - 한국이 미국에 3,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조건이며, 추가로 1,00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구매에도 합의함.
 - 최근 미국은 일본과 유럽연합(EU)에 15%의 관세를,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에는 19%, 베트남에는 20%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협상을 타결한 바 있음(주간브리프 Vol.28). 인도, 말레이시아, 대만, 중국 등과는 현재 협상 중
- 이번 협상으로 인해 한국산 자동차·조선 등 주요 수출품에 대한 관세 부담이 최초 부과 수준인 25%보다는 완화되었으며, 일본 및 EU와 동일한 조건이 적용됨에 따라 경쟁국 대비 수출 경쟁력 약화 우려가 해소됨.
- 또한, 대규모 투자를 통해 장기적인 산업 협력 기반을 확대하고, 조선 및 반도체 분야의 미국 내 직접 참여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.
 - 삼성, 현대, 한화 등 주요 대기업들은 미국 내 생산 및 고용 확장 계획도 함께 발표함. 이를 통해 양국 산업 협력의 실질적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됨.
- 다만, 이번 한·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 범위와 대미(對美) 투자 펀드 수익의 귀속 방식에 대해 양국 간 인식 차이가 일부 존재함.
 - 협상 직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농업 시장 전면 개방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였으나, 한국 측은 이를 정치적 표현으로 해석하며, 쌀과 소고기 시장의 추가 개방은 합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밝힘.
 - 또한, 미국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대미(對美) 투자 펀드 수익의 90%가 미국민에게 귀속된다고 언급 한 데 대해, 한국 측은 협상 과정에서 해당 수치는 논의된 바 없으며, 수익은 미국 내 재투자되는 구조로 해석하고 있다고 설명함.

■ 미국–한국, 일본, EU 관세 합의 비교 ■

	한국	일본	EU
상호관세율 인하	25%→15%	25%→15%	30%→15%
자동차 관세율	25%→15%	25%→15%	25%→15%
농산물	쌀·소고기 추가 개방 없음	쌀 및 일부 농산물 개방 확대, 미니멈 엑세스 제도* 유지	일부 농산물 무관세, 구체적 내용 협상 중
에너지구매	LNG 등 1,000억 달러 규모	알래스카 LNG 합작	7,500억 달러 규모
대미 투자 규모	3,500억 달러	5,500억 달러	6,000억 달러

*미니멈 엑세스 제도: 국내 소비량의 일정 비율을 낮은 관세로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. 일본의 경우 연간 77만 톤의 쌀을 무관세로 의무 수입

출처: 한경비지니스, 조선일보, 연합뉴스, TV조선



세계 경제 동향

● IMF, 7월 세계 경제 전망 (World Economic Outlook) 발표 | 2025-07-29 IMF

- 2025년 7월 29일 국제통화기금(IMF)은 7월 '세계 경제 전망(World Economic Outlook)'을 통해 세계 경제 및 주요국 경제성장률을 발표함.
 - IMF는 회원국의 경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세계 경제의 거시적 흐름, 국가별 성장을 전망, 통화·재정정책 평가, 무역·물가·금리 등의 주요 지표를 종합 분석하여 분기별로 '세계 경제 전망'을 발표함. 4월·10월은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주(主)전망이며, 1월·7월은 한국을 포함한 주요 30개국을 대상으로 한 수정 전망임.
- IMF는 2025년 세계 성장률을 3.0%, 2026년에는 3.1%로 전망함. 이는 4월 전망치보다 각각 0.2%p, 0.1%p 상향된 수치로, 관세 인상에 앞서 조기 물량 확보와 미국 달러화 약세, 일부 주요국의 재정 확대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임.
 - 다만, 이러한 반등은 경제의 기초 체력 회복보다는 무역 왜곡의 영향으로 해석되고 있음. 특히, 미국과 중국 간 관세 정책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음.
- 미국의 2025년 성장률은 1.9%로 전망되며, 이전 전망보다 0.1%p 상향 조정됨. 하지만, 민간 수요 둔화와 이민 감소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음.
 - 민간 소비가 둔화되고 있으나, 관세 인상을 앞둔 기업의 설비투자 선집행이 성장률을 끌어올림.
- 유로존의 2025년 성장률은 1.0% 전망되며, 이전 전망보다 0.2%p 상향 조정됨. 이는 아일랜드의 의약품 대미(對美) 수출 증기를 반영한 결과임.
 - 이번 상향 조정분 0.2%p 중 아일랜드의 기여분은 0.1%p로 아일랜드를 제외할 경우 유로존의 2025년 성장률은 0.9%로 조정됨.
- 일본의 2025년 성장률은 0.7%로 전망되며, 4월 전망 대비 0.1%p 상향 조정됨. 하지만, 선진국 평균 (1.5%)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며, 민간 소비 부진과 순수출 감소가 낮은 성장률의 원인으로 지목됨.
 - 다만, 일본 경제의 펀더멘털 개선보다는 엔화 약세에 따른 가격 경쟁력 개선, 수출 회복세, 재정확대 기조 유지 등의 이유로 성장을 전망을 상향 조정함.
- 중국의 2025년 성장률은 4.8%로 이전 전망 대비 0.8%p 상향 조정됨. 예상보다 견조한 수출 실적과 재정지출 확대가 주요 동력임.
 - 대미(對美)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, 아시아와 기타 지역으로의 수출 증가가 이를 상쇄함.

| 2024~2026년 IMF 세계 경제 성장을 전망 |

구분	2025년 경제성장을 전망치 (%)			4월 대비 7월 조정치 (%)p)
	1월 발표	4월 발표	7월 발표	
세계	3.3	2.8	3.0	0.2
선진국	1.9	1.4	1.5	0.1
미국	2.7	1.8	1.9	0.1
유로존	1.0	0.8	1.0	0.2
일본	1.1	0.6	0.7	0.1
한국*	2.0	1.0	0.8	-0.2
신흥개도국	4.2	3.7	4.1	0.4
중국	4.6	4.0	4.8	0.8

*보고서 본문에 한국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미포함



국내 경제 동향

● 한국은행, 2025년 상반기 「지역경제보고서」 발표 | 2025-07-28 한국은행

- 2025년 7월 28일 한국은행은 「지역경제보고서」를 통해 2025년 상반기 지역별 경제 동향을 발표함.
- 2025년 상반기 권역별 생산은 2024년 하반기 대비 호남권, 대경권, 강원권, 제주권에서 소폭 감소하였으며, 나머지 지역은 비슷한 수준을 보임.
- 제조업은 대부분 권역에서 보합세를 보였으며, 서비스업은 수도권에서만 소폭 상승함. 건설업은 전 지역에서 부진
- (수도권) 반도체 수출 호조와 금융·보험업의 견조한 성장이 있었음. 하지만, 자동차 및 디스플레이 부문의 부진, 운수업, 숙박·음식점업의 불황이 겹치면서 전체적인 경기는 보합세를 보임.
- (동남권) 조선, 기계장비 중심으로 제조업이 호조를 보이며, 설비투자도 소폭 증가함. 다만, 건설업 부진과 숙박·음식점업, 부동산업의 위축이 병존함.
- (충청권) 반도체, 자동차 부품 부문이 비교적 양호하였으나, 철강·석유화학은 부진하였음. 서비스업은 보합세를 보였으며, 전반적인 소비는 소폭 하락함.
- (호남권) 조선 및 하이브리드차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, 철강·석유화학의 업황 부진과 서비스업·건설업의 동반 약세로 전체적으로 경기가 악화됨.
- 권역 간 인구 이동은 수도권과 충청권으로의 유입 폭이 소폭 축소된 가운데, 동남권, 호남권, 대경권의 유출 폭도 축소됨. 단, 강원권·제주권의 유출은 확대되었음.
- 출생아 수는 대부분의 권역에서 증가함.

■ 2024년 하반기~2025년 상반기 권역별 경기 변화 ■





세계 농업·농정 동향

● 일본 농림수산성, 2025년 논 작물 재배의향 조사 결과 업데이트 | 2025-07-18 농림수산성

- 일본 농림수산성은 농업인이 주체적으로 재배 여부를 판단하고, 수요에 맞게 생산·판매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. 이 일환으로 2025년 논 작물 재배의향 제3차 중간 추진 상황(2025년 6월 말 기준)을 발표함(주간브리프 2025 Vol.12.).
- 농림수산성은 광역 및 지역 농업재생협의회가 수급 동향과 관련 정책을 바탕으로 2025년 6월 기준 전망한 재배의향을 정리·공표함.
- 농업인은 이를 바탕으로 2025년 8월 20일까지 재배 계획을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으므로, 향후 실제 재배면적은 변동 가능성이 있음.
- 2025년 6월 말 기준, 주식용 쌀 재배의향 면적은 136.3만 ha로, 일본 전역에서 주식용 쌀의 재배가 증가하는 추세임.
 - 2025년 쌀 생산량은 735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. 이는 전년 대비 56만 톤이 증가한 수치로, 주식용 쌀 생산량 조사를 시작한 2004년 이래 가장 큰 증가 폭으로 기록될 전망임.
- ❖ 2025년 6월 기준, 주식용 쌀의 재배의향 면적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(10.4만 ha)한 배경에는 2024년에 시작된 일본 쌀 가격 급등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| 2025년 일본 논 작물 재배의향 조사 결과(2025년 6월 말 시점) |

단위: ha

구분	주식용 쌀	전략 작물						
		기공용 쌀	수출용 쌀	가루쌀	사료용 쌀	WCS용 벼	맥류	대두
2025년 재배의향 면적	136.3만	4.4만	0.9만	0.4만	4.9만	5.0만	9.6만	7.6만
전년 대비 변화분	10.4만	-0.6만	-0.2만	-0.3만	-4.9만	-0.7만	-0.7만	-0.9만

주: WCS용 벼는 벼 발효 조사로(Whole Crop Silage, WCS)용 벼를 의미함.

자료: 일본 농림수산성



국내 농업·농정 동향

●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재해보험법 개정안 국회 통과 | 2025-07-23 농림축산식품부

-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「농어업재해대책법」 및 「농어업재해보험법」 개정안이 가결되었다고 발표함.
 - 기후위기 대응 및 실질적 재해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여야 협의 결과로서, 두 법안 모두 2026년 7월 시행 예정
- 개정된 「농어업재해대책법」은 재해 발생 시 보험 가입 여부 및 품목에 따라 차등을 두어, 생산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함.
 - 보험과 비보험 대상 간 형평성을 반영한 보완 설계
 - 재해복구비 지원 기준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피해 농가에 대한 기초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 마련
- 개정된 「농어업재해보험법」은 일정 수준 이상의 거대재해 발생 시 피해액을 보험료 할증 산정에서 제외함으로써 농가 부담 완화를 도모함.
 - 최근 5년간 연평균 할증액은 256억 원으로 2024년 보험료 지원 예산의 4.8% 수준
- 농식품부는 2026년 법 시행 전까지 관계부처 협의 및 연구 용역을 거쳐 하위법령을 정비할 예정임.
 - 지원 수준과 적용 기준 마련 예정
 - 농업계·국회·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 확보 계획

| 농어업재해 관련 법령 개정 전·후 주요 내용 비교 |

연도별	개정 전	개정 후
농어업재해 대책법	농업재해의 범위 확대 이상고온, 지진 등 일부 자연현상은 재해범위에서 제외	이상고온·지진을 재해범위에 명시, 단 기상특보 없는 경우는 위원회 인정 필요
	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기본계획 수립 의무 미규정	재해 이전 생산비용 보장을 포함한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 의무화
	기후영향평가 등 활용 기후영향평가 활용 규정 없음	농업기본법에 따른 기후영향평가 등 활용 근거 마련
	재해 실태조사 제도 도입 재해 실태조사 제도 없음	피해 원인 및 심각성 고려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 신설
	보조기준의 실거래가 반영 정책지원 방식 중심	보조·지원 기준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규정
	보험 미가입자 대책 마련 보험 미가입자 지원 규정 없음	보험상품 미출시 등 불가피한 사유 시 대책 마련 의무화
	피해신고 절차 안내 피해신고 안내 의무 없음	재해 입은 농가·어가에 신고방법 안내 의무 신설
농어업재해 보험법	기초생산비용 보장 확대 복구단가 실거래가 60% 수준	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비용 전부 또는 일부 지원 명시
	농작물/수산양식물 지원 확대 비보험 작물 등 지원 근거 미약	보험 대상 외 작물 및 수산양식물 지원 항목 신설
	농업생산기반시설 개선 관련 규정 명시 없음	침수지역 등 생산기반시설 개선 항목 신설